

LIFE

주간조선 컬렉션

10년간 채워 넣은 色の 폭발

‘연필’스타 홍경택



▲ 펜3

이 그림을 보니 학창 시절 선생님들이 자주 내주던 ‘깜지’ 숙제가 생각납니다. 연습장에 영어 단어나 한자 단어를 뽁뽁이 써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연필을 꺾꺾 눌러가며 단어를 써내려 가다 보면 정작 단어는 잊어버리고, 여백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작가 홍경택(44)도 ‘무엇’을 그리느냐보다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로 8m에 이르는 이 작품(펜3)은 작가가 지난 10년간 매달려 완성했다고 합니다. 연필, 책 등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도구들이지만 강박증을 의심할 정도로 작업의 과정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넘치도록 채워 넣은 연필은 화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폭발할 듯 강렬한 색채는 서로 잘났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반짝반짝 매끈한 플라스틱 질감은 현대인의 가벼운 욕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작가는 “해석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즐겨라”라고 말하지만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홍경택’을 말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크리스티 스타’입니다. 2007년 5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연필1’이 당시 한국 작품 사상 최고가인 7억8000만원에 낙찰되면서 국내에서 무명에 가깝던 그는 단숨에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작가는 작품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받는 것을 경계하지만, 그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시가 흔치 않은 작가의 그림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두산아트센터(02- 708- 5050)에서 4월 29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End_mark]